

권오신의 현조(賢祖)실록 산책

기획특집 2



글 권오신
(대중회 부회장, 칼럼니스트)

충민공忠愍公(竹林)의 신원회복
죽림공竹林公은 그의 후손이신 갈산공(葛山公, 權宗洛)에 의해 신원이 회복됐다. 갈산공은 단종(端宗) 사화로 인해 화를 입은 충신들이 모두 복권되고 증직(贈職)이 되었는데도 유독 자신의 12대조(權山海)만 누락된 것을 억울하게 여기고 한양으로 올라가 궁성 밖으로 나온 정조대왕(正祖大王)의 어가행렬을 막고 수레 앞에 엎드려 눈물로 호소했다.

정조 13년(1789) 죽림 선조가 복권되기까지 상소를 올리고 격쟁(擊鉦)을 쳐서 부당함을 거듭 호소한 끝에 신원이 회복되고 이조판서(吏曹判書)로 증직되었다.

죽림공은 그때까지 금성단에 이름을 올렸다. 조선 6대 임금 단종 복위에 생명을 걸었던 금성대군(錦城大君)과 한길을 걸었던 죽림, 사정(司正) 후손들은 자연스럽게 깊은 인연을 쌓았다. 사육신(死六臣)이나 생육신(生六臣) 등 성(姓)과 가문(家門)이 틀리지만 하나의 가자관을 지키기 위해서 같은 길을 걸었던 것이 인연이 됐다.

그해 정조로부터 죽림공에게 정려(旌闕, 충신 효자 열녀를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 그 고을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붉은 정문을 세우도록 하고 나라에서 임금이 표창 하는 제도)를 내리고 증직하라는 왕명(王命)이 떨어졌다.

충민공(忠愍公)에게 두 번째 기증은 조선 후기 26대 임금 고종 21년(1884년)에 있었다. 이조판서로 추증되고 충민(忠愍)이란 시호(諡號, 성인이 죽은 뒤 선전의 흔적과 공적을 칭송, 임금이 내리는 칭호)를 받으셨다.

당시 고종이 선왕(先王) 대에 이미 증직이 된 죽림공에게 이조판서로의 추가 기증(加贈)을 꺼낸 것은 일본과 러시아 세력에 빌붙어 자리를 탐하고 매관매직으로 재물을 모으는데 혈안이 된 의정부의 부패관료들에게 “단종의 이모부로 성품이 강직하고 의(義)와 효(孝)를 중히 여긴 당대의 문신”상을 본보기로 삼으려 한 시대적 배경을 깔고 있다.

3월 9일은 고종 인산(因山, 태상황극 임금 국모 세손 및 그 비(妃)의 국장일 또는 장례일) 100주년이 되는 날이다.

예전(禮泉) 노봉서원(魯峰書院) 못미처 소나무 숲 아늑한 곳엔 죽림공의 신도비(神道碑)와 정충각(旌忠閣)이 서있다. 원래는 1794년 재사(齎舍)가 있었던 예천군(禮泉郡) 지보면(知保面) 대죽리(大竹里) 고항마을에 건립됐으나 관리가 어려워 지난 2004년 5월 후손들이 모여 사는 노봉서원 앞으로 옮겼다.

신도비(神道碑)엔 태종 3년(1403년)始祖大師公의 19세손으로 龍宮縣 申上坊 大竹里

고종과 충민공 권산해

高宗 忠愍公(竹林) 權山海



(현재의 醴泉郡 知保面 大竹里)에서 태어나서 世祖 2년(1456) 端宗土祿대 사육신(死六臣)과 같이 순절(殉節)하신 기록과 추증 관직 등이 기록돼 있다.

신도비(神道碑)의 비문(碑文)은 돈녕부(敦寧府) 도정(都正)이신 진성(眞城) 이한응(李漢膺)이 1852년에 지었다.

정충각(旌忠閣)은 정조 5년(1791년) 증직이 되고 정려(旌闕)가 내려진 3년 후 이조판서 홍양호(洪良浩)공의 주관으로 대죽리 고항마을 어귀에 세워졌다.

상량문(上樑文)은 돈녕부(敦寧府) 도정(都正) 목만중(睦萬中)이 짓고 글씨는 명필(名筆)이자 문신(文臣)이신 이조판서(吏曹判書) 홍양호(洪良浩)공이 썼다.

충민(忠愍)공은 慶州 운곡서원(雲谷書院)과 예천(醴泉) 노봉서원(魯峰書院)에서 배향(配享)되고 있다.

죽림 선조의 신원회복을 위해 일생을 건 갈산공(葛山公)
넓은 터 용추를 벗 삼은 곳에 압각수(鴨脚樹, 경주시 보호수) 한그루가 2백30년 세월을 맞고 보내었다. 경주 운곡서원(雲谷書院)을 떠받드는 유연정(悠然亭,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345호)을 벗 삼은 나이 200년의 압각수(鴨脚樹, 은행나무)는 갈산(葛山, 諱 權宗洛)공과 얽힌 특별한 얘기를 간직하고 있다.

단종 사화로 죽은 충신들이 모두 복권되고 증직(贈職)이 되었는데도 유독 자신의 12대조(竹林 權山海)만 누락된 것을 억울하게 여기고 열흘 넘게 걸어 한양(漢陽)으로 올라갔다. 궁밖에 나온 정조대왕(正祖大王) 어가행렬을 격쟁(擊鉦)으로 막고 수레 앞에 엎드려 눈물로 호소했다.

정조 13년(1789) 죽림공은 갈산공의 목숨을 건 격쟁(擊鉦, 조선시대 원통한 일이 있었던 백성이 임금의 행차를 가로막고 징이나 팽과리를 울려 사연을 울리고 왕의 비답을 기다렸던 방법)으로 신원이 회복되고 이조판서로 증직되어서 순흥 금성단에 이름을 올리웠다.

갈산공은 한양에서 고지를 가슴에 품고

돌아오는 길에 순흥 금성단(사적 491호)에 들러 압각수(鴨脚樹) 가지를 한자 남짓하게 잘라 행랑에 넣고 고향 길을 재촉하였다. 영주에서 경주(慶州)길이 4백 여리. 예천의 죽림공 묘소에 들러 신원된 사실을 고유(告由)를 하다 보니 한 달이 넘어 경주 운곡서원에 도착하였다.

갈산공은 유연정 옆 용추 언덕자리에 심기위해 겹겹질이 말라버린 압각수를 행랑에서 꺼내셨다. 친척들이 “은행나무가 살아날 리 없다”고 하자 공은 크게 화를 내시면서 “죽림선조의 충절이 드러나면 반드시 살 것이다.”라는 말을 남기시고 심었는데 그 다음 해 봄 고이 예언했던 것처럼 기적같이 새음이 나와서 200년이 넘는 풍상(風霜)을 안고 노거수로 자랐다.

은행나무는 꺾임이가 잘 되지 않는 나무다. 이 나무의 어머니가 되는 영주 순흥의 금성단 은행나무도 특별한 사연을 지닌다.

단종 1년(1452) 탈정하던 은행나무가 시들 시들 말라갔다. 당시 순흥에서 가장 웅하다는 점쟁이가 말하길 “이 나무가 살아나면 순흥이 복향 될 것이다”고 예언했다. 점쟁이의 예언처럼 단종복위(端宗復位)운동을 벌였던 금성대군(錦城大君)도, 대군을 따랐던 사림들이 몰 죽임을 당하고 순흥부는 폐향, 마을 앞 내는 핏물로 덮였다.

240년이 지나 단종의 왕호가 복원되고 사육신(死六臣)에게도 복권 교지가 내려졌다. 순흥부도 복향이 되자 점쟁이의 말처럼 압각수(수령 1200년 추정)도 기적같이 살아나 금새 큰 숲을 이루었다. 지금도 순흥은 맑고 차가운 정신이 드는 곳이다.

이 전설이 갈산공으로 인해 유연정(悠然亭) 용추(龍愁)로 돌아오게 된 것이다.

갈산공(諱 宗洛)은 영조 21년(1745, 乙丑年) 경주 강동면 국당리에서 태어 나셨다.

자는 명응(明應) 호가 갈산(葛山) 또는 형와(兄窩)로 불렸다.

갈산공은 모부인의 벼슬을 벗어나는 순간부터 풍도(風度, 풍채와 태도)가 괴위(魁偉, 크고 아름답다)하고 광박(廣博, 넓고 광대하

다)해서 주위를 놀라게 하고 삶시간에 그 소문이 퍼졌다고 한다. 큰일을 한 인물로 하는로부터 예시를 받았다고 했다.

풍도, 괴위, 광박했던 것처럼 학문을 익히는 속도가 빠르고 행실이 곧고 학인들과 사귀기를 좋아했다고 한다.

더디어 정조 8년(1784, 甲辰年) 나이 40살 때 문중과 경주사림(慶州士林)을 움직여 시조 태사공을 배향하는 운천서원(雲川書院) 창건 주역을 맡아 준공시켰다. 정조 13년(1789, 己酉年)엔 죽림공의 신원(伸, 원통한 일)이 받아들여져 관직이 회복되고 고지를 받아내었다. 공(公)이 천칭(天聽, 재왕이 들음, 하늘이 받아줌)이 감동해서 죽림공의 신원이 회복 되었다고 했다.

공은 죽림공(竹林公, 諱 山海)의 12대 손이 된다.

죽림공의 넷째 아드님이신 판관공(判官公, 諱 哲孫)의 11대손, 보공부장(保功部長 諱 敏)의 10대손, 순경공(諱 舜卿公)의 9대손, 부장영(部長將 諱)의 8대손이다.

임진왜란 때 의병장이셨던 구사재(仇思齋 諱 復故)공의 7대손, 내금위(內禁衛) 약(約)공의 6대손, 경현공(諱 景賢公)의 5대손, 득경공(諱 得經公)의 현손이시며 화중공(諱 華重公)의 증손, 달봉공(諱 達鳳公)의 손자이니시 諱 翼수 공의 맏이가 된다.

당대의 문인 강옹(長翁) 이현경(李獻慶)으로부터 학문을 배우고 조선의 명재상이었던 번암(樊巖) 체제공(蔡濟恭1720-1799)과 이계(耳溪) 홍양호(洪良浩)등 당대의 명사들과 교류했던 이름난 선비 이셨다.

순조 12년(1812) 홍경래 난이 일자 의병장으로 추대되었으나 난이 평정되어서 출정하지 않았다. 순조 19년(1819, 己卯年) 고종(古終)하시니 75살이셨다. 경주 강동면 왕산리 운곡 남쪽 산 조모의 묘소아래 미좌(未坐, 남서를 뒤로하고 북동쪽을 바라보는 자리)로 썼다. 성대(臺臺) 권세연(權世淵)공이 비문을 지었다. 현종(憲宗) 9년(1843, 癸卯年)에 비갈을 세웠던 날에 이적이 나타났다.

당시 서원 용추자리에 갈산공이 영주 금성단에서 한 달이나 걸려 가져와 심었던 압각수 앞이 산이 가린 먼 거리에 위치한 공의 묘소까지 날아와 떨어 졌다고 한다. 죽어서도 살아서도 선대 죽림공을 향한 마음이 이어진 기적이었다.

저서로 『갈산집葛山集』은 고종 16년(1879, 己卯年)간행되었고 유사집(遺事集)도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 졌다. 예천 노봉서원에 배향 되었다. 배위하신 여주이씨(驪州李氏) 원중(元中)공의 따남사이에 치영(致榮) 치책(致策) 치보(致保) 공이 있으며 둘째 아들 치책(致策)公은 양자를 나갔다.

두 딸은 정주보(鄭周輔) 이암윤(李菴潤)공에게 출가했다.

2007년 경주 운곡서원에 태사공 신도비가 세워질 때 은행나무와 마주보는 곳에 기적비(記蹟碑)를 같이 세웠다. 비문은 봉화 송석현(松石軒)의 주인이시자 한학자(漢學者)이며 부모의 묘소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찾았던 이 시대의 마지막 효자이신 33세 중후손 권현조(權憲組)씨가 짓고 월성인(月城人) 손장호(孫章輔)씨가 썼다.

(자료출처: 竹林公墓路誌, 永嘉言行錄, 醴泉郡誌, 慶州 雲谷書院誌, 慶州儒敎文化遺蹟, 判官公世系譜)

부산등산회 기해년 시산제 올려

안동 권씨 부산등산회(회장 權寧寅)는 지난 2월 23일(토) 오전 부산의 금정산 상계봉 인근 전망대에서 올 기해년 시산제를 올렸다. 종친회 회원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시산제는 영인 회장이 초헌관, 중원(重元) 고문이 아헌관, 옥태 부너회 고문이 종헌관을 맡은 가운데 엄숙히 거행되었다. 축관을 맡은 영



훈(永勳) 산행대장은 기원문을 통하여 지난해 우리 등산회 산행을 안전하게 보살피고 주신 산신께 감사드리고, 올 한 해 종친회 번성과 회원의 가내만복, 그리고 금년 산행의 무사안녕을 발원(發願)하면서 많은 관심과 참여로 등산회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소망하였다.

산신제를 마친 등산회는 차려진 음식과 도시락을 펼쳐놓고 담소와 함께 즐거운 오찬회로 이어졌다. 영인 회장은 인사를 통해 많이 참석한 데 대한 감사와 함께 더 많은 축친이 건강 증진과 친목 도모에 동참하도록 등산회 홍보에 더욱 노력해 주기를 당부하였으며, 다원 총무는 지난달 재무 보고와 함께 재수를 준비하고, 잔조를 한 축친을 소개하며 박수를 유도하여 고마움을 표하였다.

이날 등산은 오전 10시에 온천장역에 모여 버스로 금정산 산성고개까지 이동한 뒤 남문 위쪽에 올라 제를 올리고, 식후에는 만덕고개를 지나 황전양로원과 금강공원을 거쳐 오후 4시경 온천장으로 내려와 산행 뒤풀이로 끝을 맺었다. 특히 중원(중원), 영우(영우), 영국(장보기) 축친이 제물을 넉넉히 마련하여 모두를 배부르게 하였고, 하산 도중에는 옥태 축친이 하모니카 독주로 참석자들의 심금을 휘저었으며, 막바지 뒤풀이까지도 흥겹고 즐거운 분위기 속에 마무리되었다.

안동권씨 부산등산회 정기 산행은 ‘매월 마지막 토요일마다’ 갖고 있으며, 참여를 희망하는 축친은 누구나 회장(010-3847-4192) 또는 총무(010-2555-5474)에게 연락하면 함께 할 수 있다고 한다. 부산 사무국장 권재영

제55차 안동권씨의성군종친회 개최

제55차 안동권씨의성군종친회 정기총회가 오는 3월 30일(토) 11시 안동권씨의성군종친회 관(의성군 의성읍 삼리동)에서 개최한다.

매년 3월말에 개최되는 이번 총회에서는 의성군종친회 권영호 회장의 이임식과 새로운 회장을 선출하는 한다.

그 동안 권영호 회장은 40여년간 교육 공직에 재직하면서 2015년 3월부터 현재까지(4년간) 의성군 종친회장을 맡아 오면서 어려운 의성종친회를 이끌어 왔다.

특히, 종친회도 시대적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그동안 몇몇 사립에 의하여 운영되고 폐쇄적인 종친회를 젊은 층이 스스로 참여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종친회 발전기금모금 등으로 어렵게 운영 되었던 회계를 바로잡는 등 의성군종친회에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날 안동권씨의성군종친회에서는 권회장께 명예회장으로 추대하고 감사패를 전달할 예정이다.

총무부장 권인섭



세무법인 화인

대표세무사: 권혁창 (權赫昶) (010-3680-5057) 북야공파36대

업무내용

1. 세무업무 신고대리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원천세
2. 세무업무 기장대리
3. 세무 상담 및 세무컨설팅
4. 재산세 관련 세무 상담 및 신고대리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5. 법인설립(창업), 기업합병 상담

<본사>

서울시 강서구 발산로 40
농수산식품공사 강서지사 501.2호
Tel) 02-2640-6565
Fax) 02-2640-6569
근무세무사: 권혁창, 정부혜

<동부지점>

서울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
가락몰 업무동 10층 15,16호
Tel) 02-3435-6565
Fax) 02-3435-6568
근무세무사: 정대성, 김병재

<강원지점>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중앙로 5
Tel) 033-375-7768
근무세무사: 김인섭

가 나 기 획



대표 권혁준 02)741-7191~3 / 010-5281-7191

집안 어른들께는 최대한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겠습니다.